

# 초저금리에 최대 490만원 혜택 완성차, 휴가철 프로모션 선보여

**현대차** 한달간 2.9% 저금리 적용  
코나·투싼 등 SUV 썸머 페스티벌

**르노코리아** 옵션·액세서리 지원  
QM6 310만원, SM6 490만원 혜택

국내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맞춰 초저금리 혜택부터 전 차종 구매 고객 대상 액세서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내수 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한달 간 2.9%의 초저금리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SUV SUMMER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대상 차종은 ▲코나 ▲투싼 ▲싼타페 ▲GV70 ▲GV80 등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한 총 8개 차종으로 ▲코나 ▲GV70 ▲GV80은 기존 금리 4.5%에서 1.6%p, ▲투싼 ▲싼타페는 기존 금리 4.0%에서 1.1%p를 낮췄다. 이는 60개월 할부 기준이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차량 금액의 1%를 선수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60개월 할부로 진행하면 코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터보 모던 모델은 102만 8400원 절약할 수 있다. 투싼 모던 모델은 총 납입료를 79만 7900원 아낄 수 있으며 쏘타페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총 납입료 102만 1000원 절약할 수 있다.

제네시스 인기 모델인 ▲GV70 가솔린 2.5터보 ▲GV80 가솔린 2.5터보는



현대차 ‘SUV SUMMER 페스티벌’.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각각 226만1800원, 292만 100원 절약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구매시 옵션·액세서리·연장보증 중 구매 지원(아르카나/SM6/QM6 50만 원 및 그랑 콜레오스 30만 원 상당) 또는 엔진오일 3회 교환 쿠폰 무상 제공 중 고객 선택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유에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도 지난달보다 더욱 낮아졌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인텐스

트립의 경우 잔가보장 할부를 통해 월 3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선수율 20% 및 36개월 기준). 3%대 정액불 상품도 할부원금 2500만원 이하 최대 36개월 3.3%와 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최대 60개월 3.9%로 더욱 다양해 졌다. 단 테크노 트립은 일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쿠팡형 SUV 아르카나는 제휴 상품을 통해 24개월(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36개월(할부원금 1500만원 이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50만원의 특별 혜택과 함께 정액불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구매 지원 혜택과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140만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QM6는 제휴 할부로 무이자 할부 등을 적용하면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SM6는 파워트레인별 혜택 등 총 49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집단지성으로 유일의 가치 만들자”

HS효성그룹 창립 1주년 기념행사  
조현상 부회장  
“모두가 경영자… 역사 만들어가자”



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과거 효성시절 대비 지난 1년간 연구인력을 30% 이상 늘렸다.

“우리가 이룬 1년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창업’ 그 자체였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

1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은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HS효성그룹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HS효성의 ‘창업자’로서 함께 일군 대장정의 첫해를 축하했다.

조 부회장은 “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R&D 활동을 통해 비전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실제로 HS효성은 조 부

안성훈 HS효성 공동대표이사는 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불확실성지수가 IMF 시기보다도 2~3배 높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조직의 저력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못할 게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HS효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과 가치로 경쟁하는 ‘강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폴리에스터타이어코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2대 중 1대에 사용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HS효성이 보유한 전통적 기술 경쟁력의 단단한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HS효성은 ‘가치 또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1주년을 임직원과 그 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전자-로지스밸리 ‘스마트물류’ 진출

스마트팩토리 기술, 물류에 첫 적용  
박스단위 포장작업 로봇이 자동 수행

LG전자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물류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국내 최대 복합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로지스밸리는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직영 물류센터 50여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LG전자가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 분야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양사는 로봇 자동화,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

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스마트물류 센터를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LG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비전 AI,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술이 물류센터에 적용되면 박스 단위 포장이나 물동 분류 작업을 로봇이 자동 수행하고, 비전 AI가 포장 오류를 줄이며 전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공간에 물류센터를 구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동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강점이다.

양사는 로지스밸리의 신규물류센터뿐 아니라 LG전자의 자체 가전 물류센터에도 스마트물류 솔루션을 적용하고, 글로벌 고객 대상 공동 영업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 LG AI연구원, 민간기업 대표 AI윤리 논의

‘AI 윤리 글로벌 포럼’ 2년연속 참가  
‘AI 윤리 MOOC’ 진행 현황 공유도

LG AI연구원이 유네스코 주관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2년 연속 참가하며, 인공지능(AI) 윤리와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 민간 기업을 대표했다.

LG는 지난달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LG AI연구원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 194개 회원국과 12개 국제기구 인사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AI 시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AP, 인포시스, 톰슨로이터재단 등과 함께 민간 부문의 책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인 ‘AI 윤리MOOC’ 진행 현황도 공유했다.

AI 윤리 MOOC은 전 세계 AI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지난달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LG AI연구원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위 사진은 26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부문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 /LG그룹

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의 AI 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 하버드대, 뉴욕대, 노트르담대, 유엔대, 모질라 재단 등 주요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LG AI연구원은 오는 5일 일본에서 열리는 ‘AI 안전성 워크숍’과 8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AI 포커스 서밋’에도 연이어 참석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내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 ‘AI

임팩트 정상회의’에서 MOOC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유엔 AI 자문위원이자 세계경제포럼 AI행동연합 공동의장인 빌라스 다르 패트릭 J. 맥거번 재단 대표가 방한해 LG AI연구원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됐다”며 차별적 미래가치를 위한 변화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현대자동차 ‘Car to Car 프로젝트’ 소개

‘2025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대자동차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폐차의 재활용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했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기관·고객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펴냈다.

‘2025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크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파트로 구성됐다. 환경 파트에서는 ▲국내 사업장의 국내 최대 규모 전력구매계약

(PPA) 체결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담았다.

폐차의 재활용 소재를 신차에 적용하는 ‘Car to Car 프로젝트’ 등 차량 순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소개하며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사회 파트에서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ESG 관련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 연합)와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공급망의 사회적, 윤리적 및 환경적 성과의 개선을 위한 공급망 협의체) 신규 가입을 다뤘다.

/양성운 기자